

# 남침례교 조직신학자들의 속죄교리

근 광 현  
〈조직신학·교수〉  
kkhinhs@kbtus.ac.kr

## I. 서론

속죄론은 그리스도론과 깊게 연결된 주제이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속하며, 속죄론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자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속죄론은 고대 교부들 때부터 관심 있는 주제였지만, 대체로 부분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러다가 12세기에 속죄론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가 일어났다. 대표적인 인물은 캔터베리의 안셀름(Anselm of Canterbury, 1033-1109)과 피터 아벨라드(Peter Abelard, 1079-1142)이다. 안셀름 이전에 속죄론의 주제는 하나님이 사탄의 지배 하에 있는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음을 사탄에게 지불했다는 속전설(ransom theory)이다. 이에 안셀름은 그의 책 「인간이 되신 하나님」(*Cur Deus Homo*)에서 만족설(satisfaction theory)을 제기했고, 아벨라드는 만족설에 반대하여 도덕 감화설(moral influence theory)을 주장했다.<sup>1)</sup>

현대인들이 속죄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된 것은 구스

타프 아울렌(Gustaf Aul n)이 쓴 「승리자 그리스도」(*Christus Victor*)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속죄론을 초기 교부들의 고전적 유형(the classic type)과 안셀름과 그를 따랐던 종교개혁자들의 라틴 유형(the Latin type) 혹은 객관적 유형(objective type), 그리고 아벨라드의 주관적 유형(subjective type)으로 분류했다. 고전적 유형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악의 세력에 대한 영원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승리”에 초점을 두었다. 라틴 유형은 대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속죄제를 받으시고 그 “만족”을 통해 이루어진 “실제적인 속죄”(the actual atonement)를 강조했다. 주관적 유형은 그리스도와 사람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가 느슨한 라틴 유형에 반대하여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그리스도의 모범과 이상적인 인간상을 강조했다.<sup>2)</sup>

이에 연구자는 남침례교 조직신학자들이 속죄 교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탐구하기 위해 선임자인 보이스(J. P. Boyce)를 비롯해 멀린스(E. Y. Mullins)와 카너(W. T. Conner) 그리고 데일 무디(Dale Moody)를 선정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고 이 논문의 연구 중심은 보이스가 칼빈주의자들의 형벌 대속설(penal substitution theory)을 대변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신학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들의 속죄론의 위치를 연구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의 속죄교리 연구는 갈수록 신자들의 삶에서 죄인식이 약화하여 가고 있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과 부활 승리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 사역이었다. 따라서 연구자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그들의 삶의 기초로 삼을 때, 영적이고 도덕적인 삶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1) 김동진, 「그리스도론의 역사」(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8), 363-4.

2) Gustaf Aul n, *Christus Victor*, trans. A. G. Heber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6), 2, 143-52.

## II. 속죄 개념

### 1. 속죄 용어이해

일반적인 용어로서 속죄(atonement)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at-one-ment)에서 온 말이다.<sup>3)</sup> 고전 영어의 용어인 “atonement”는 이전에 소외되었던 당사자 간의 “하나 됨”이라는 화해된 상태를 가리키는 신학적 용어이다(고후 5:19).<sup>4)</sup> 멀린스는 구약의 용어인 속죄라는 말보다 더 풍성한 의미를 갖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the saving work of Christ)으로 표현했다. 카너는 멀린스와 같이 신약의 용어를 사용하는 게 좋겠다고 속죄 용어를 “십자가”로 대체하고,<sup>5)</sup> 속죄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the redemptive work of Christ)으로 묘사했다.<sup>6)</sup> 하지만 무디는 속죄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의한 화해로 이해했다.<sup>7)</sup> 조지 래드(George. E. Ladd)에 의하면, 본래 “속죄”라는 단어는 신약의 용어가 아니었지만,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간의 죄 문제를 다루며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다는 신약의 중심 개념 중 하나이다.<sup>8)</sup>

3) Walter D. Draughon III, “속죄,” 「침례교 신학의 흐름: 1845년부터 최근까지」, Paul Basden 편, 침례교신학연구소 옮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123.

4) Gregory A. Boyd, et al., 「속죄의 본질 논쟁」,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11.

5) W. T.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45), 76-7.

6) Ibid., 76.

7) Dale Moody, *The Word of Truth: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Based on Biblical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374-5.

8) G. E. Ladd,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475.

## 2.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

보이스는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분을 분석했다(사 53:6, 10-11). 그 내용은 “그는 우리의 죄를 지고 질고를 당하셨다”는 표현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표현이다. 보이스는 이 같은 내용으로 속죄의 성경적 의미를 그리스도의 죽음의 희생제물 되심(요 1:29, 36),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희생제사의 성취로서 실질적인 화해(마 20:28; 롬 5:10; 고후 5:18-21; 골 1:14, 19, 22), 그리고 죄 용서가 제공되었다는 선언으로 파악했다.<sup>9)</sup>

한편, 멀린스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의 모습을 통해 “대리” 교리와 그리스도의 죽음과의 연합을 강조했다.<sup>10)</sup> 멀린스에 의하면,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화목제물(propitiation), 화해(reconciliation), 그리고 구속(redemption)으로 표현되어 속죄의 성경적 의미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과에 대해서는 죄 사함(remission), 대속물(ransom), 우리를 구출해내기 위해 지불된 가격(purchase price), 그리고 우리를 위한 저주(curse)의 의미로 표현되어,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가 인간의 구원과 얼마나 생동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준다.<sup>11)</sup>

다른 한편, 카너는 이사야서 53장과 요한복음 1장 29절(출 29:38-46)을 연결하여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리적 고난”으로 파악했다.

---

9) J. P. Boyce, *Abstract Systematic Theology* (Escondido: Dulk Christian Foundation, 1887), 320-1.

10) E. Y. Mullins, “Historic Theories of Atonement: Book Review,” *Review & Expositor* vol. 20, no. 2 (April 1923): 233.

11) E. Y. Mullins,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17), 304-5.

카너에게 있어서 대리적 고난이 주는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인간 사랑으로 표현되는 오래 참으심, 순종, 화목제물, 그리고 구속의 의미를 담고 있다(요일 2:2; 4:10).<sup>12)</sup> 그런데 카너는 보이스나 멀린스와 달리 화목제물에 대한 용어 사용에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에 의해서 제정된 희생제물은 죄의식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히 9:8-9), 이 상황을 풀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propitiation)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다(히 2:17).<sup>13)</sup> 다시 말해 현대의 일부 신학자들이 화목제물을 하나님을 달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주는 본래의 의미인 “죄의 속죄”(expiate sins)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바른 지적이다. 카너에게 있어서 화목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의 죄의식을 제거하는 것이자 하나님의 면전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는 것을 의미했다(히 10:26-31).<sup>14)</sup>

그러자 무디는 예수님의 육체는 성육신이고(요일 4:1-6), 그의 피는 죄를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요일 1:7) 죄를 씻는 속죄의 “방법”으로서 “propitiation”이 아니라 “expiation”이 옳다고 말했다.<sup>15)</sup> 그래서 무디는 “희생제사-화해”의 관점에서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를 파악했다. 이는 무디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희생제사 형태로 표현하여 성경적 속죄의 의미를 “그리스도로서의 예수께 두었다”는 말이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구약의 의로운 인자로서의 종(사 53:11)과 죄를 위한 희생제사(요일 2:1-2)의 교훈과 직결되어 있다. 그 결과 속죄는 죽음에 대한 희생제사와 의로운

12) W. T.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54), 104.

13) W. T. Conner, *The Faith of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40), 231.

14) *Ibid.*, 232-3.

15) Moody, *The Word of Truth*, 377.

사람으로서의 종으로 귀결된다는 것이다.<sup>16)</sup> 무디는 이 같은 속죄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나타난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를 “희생제사”(sacrifice)에 의한 4Rs, 즉 계시(revelation), 화해(reconciliation), 의(righteousness), 구속(redemption)으로 파악했다.<sup>17)</sup>

### III. 속죄의 본질

신학자들은 주로 “희생제사,” “화목제물,” “대속물,” “대리,” “화해” 등의 속죄 개념을 통해 희생제사로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죽음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의미하는 속죄의 성경적 의미는 죄 사함을 통한 화해로 파악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속죄의 성경적인 의미를 속죄의 본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형벌 대속설<sup>18)</sup>을 중심으로 살펴 보겠다.

#### 1. J. P. Boyce의 형벌 대속설

마크 쥐스톨(Mark A. Gstohl)은 보이스가 형벌 대속설을 적극적으로 변호한 신학자라고 소개했다.<sup>19)</sup> 보이스에 의하면, 속죄는 그리스도의 고

---

16) Dale Moody, “The Theology of the Johannine Letters,”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vol. 13, no. 1 (Fall 1970): 8.

17) Moody, *The Word of Truth*, 374.

18) 형벌 대속설의 모체인 만족설이 제시한 죄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다. 즉 죄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형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본성상 그 문제에 대해서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실 수 있지만,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 죄 용서는 하나님의 선택이지만 죄의 형벌은 아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죄를 처벌하도록 구속한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지 않으면 불의하며, 세상의 도덕 질서의 기초가 무너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Walter T. Conner, “Three Theories of the Atonement,” *Review & Expositor* vol. 43, no. 3 (July 1946): 275-6.

19) Mark A. Gstohl, *Southern Baptist Theologians and Original Sin* (Lewiston:

난과 죽으심을 통해 그가 대리한 사람들을 위해 죄 형벌을 당함으로써, 그들이 깨뜨린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만족시켰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가 대리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과 충분한 화해를 이루셨다.<sup>20)</sup>

보이스는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구원하여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의 “대리”(substitute)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대리 개념은 율법에 따른 제물의 위치와 희생제사 개념을 유추할 수 있는 초석이기 때문이다.<sup>21)</sup> 보이스는 이사야 53장 4-11절에 나오는 “대리”(사 53:4-6, 11-12; 참조, 마 20:28; 막 10:45; 요 11:47-52; 롬 5:8; 8:32; 고후 5:21; 갈 1:3-4; 3:13; 엡 5:2; 살전 5:9-10; 딤후 2:5-6)와 그에게 가해진 “형벌”(사 53:4-5, 8) 이야기를 초석으로 삼았다. 그리고 보이스는 대리자인 그리스도께서 소유하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신-인성, 거룩함, 무흠한 어린양, 자원하는 제물, 형벌, 그리고 법적 대표자 개념으로 표현했다.<sup>22)</sup> 이를 토대로 보이스는 그리스도에게 가해진 형벌 이야기를 가리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취하신 희생제사이기에, 그가 대리한 사람들이 지은 범죄에 대한 형벌을 “실제적으로 짊어진 사건”이라고 말했다(사 53:6, 11-12; 히 9:28; 벰전 2:24; 참조, 레 5:1, 17; 7:18; 19:8; 24:15; 민 14:34; 겔 18:20; 44:10-12). 부연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대표자로 고난 받아 형벌을 받으신 대리 행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을 성취한 “형벌”이라는 것이다(사 53:4-5; 롬 4:25; 히 13:12; 벰전 3:18). 결국 보이스가 말하는 형벌 이야기는 “희생제사-대리-만족-대표자-형벌-죄-고난-십자가-죄책감 제거-화해”가 하

---

The Edwin Mellen Press, 2004), 30.

20) Boyce, *Abstract Systematic Theology*, 317.

21) *Ibid.*, 321.

22) *Ibid.*, 323-5.

나눔과 우리 사이에서 발생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sup>23)</sup> 보이스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한 실질적인 속죄”(a real atonement)라고 칭했다. 실질적인 속죄는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러 온 사람들의 대리자가 되어 그들 대신에 범죄의 형벌을 받았고, 그때 율법의 요구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충분한 만족을 얻었으며, 그 결과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실질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실질적인 화해란 실질적인 죄 사함을 의미한다.<sup>24)</sup>

그레고리 보이드(Gregory A. Boyd)에 의하면, 속죄의 객관적인 모델은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는 방식이다. 근본적인 쟁점은 인간의 구원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일어난 법적이고 형벌적인 거래에 관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율법에 따른 형벌 대속설의 근간을 이룬다.<sup>25)</sup>

## 2. E. Y. Mullins의 수정 형벌 대속설

멀린스는 보이스와 달리 율법적인 하나님의 정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의에 대한 성취로 간주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여 형벌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기꺼이 인정했다. 하지만 멀린스는 형벌 대속설의 미흡함을 수정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sup>26)</sup>

먼저 멀린스는 객관과 주관의 관계 틀로 속죄의 본질을 파악했다. 멀린

---

23) Ibid., 326-8.

24) Ibid., 317-9.

25) Boyd, et al., 「속죄의 본질 논쟁」, 19.

26) Walter D. Draughon III,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Diminishing Influence of Calvinism on the Doctrine of Atonement in Representativ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James Petigru Boyce, Edgar Young Mullins, Walter Thomas Conner, and Dale Moody”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7), 132-4.



스에 의하면, 객관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했을 때, 죄 사망의 원리가 파괴되어 하나의 구속적인 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역사적인 행위는 주관적인 체험으로 일어난다. 그리스도는 중생과 칭의로 구속된 개인을 통해 새 인류를 창조하기 때문에, 속죄는 외부에서와 같이 내부에서 화목이 된다.<sup>27)</sup> 이같이 멀린스가 객관과 주관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을 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는 여러 속죄 이론에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의 사역 대상을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 한정하는 객관적 입장과 오직 인간에 대해서 한정하는 주관적 입장 두 부류로 나타난다고 진단했다.<sup>28)</sup>

멀린스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했던 옛 속죄 이론과 달리 속죄의 필요성이 하나님과 인간 양자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속죄의 “신적 관련성과 인간적 관련성”이라는 틀로 이를 설명했다. 신적 관련성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 작용하고, 그것은 인간적 관련성에서 회개를 일으키는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다.<sup>29)</sup> 멀린스는 이를 토대로 하여 죄를 하나님의 명예훼손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형벌과 요구조건으로 속전 및 만족과 빛을 제시하며, 하나님 편에서 속죄의 필요성을 강조한 객관적 유형인 보이스의 형벌 대속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sup>30)</sup> 아울러 속죄는 인간에게 필연적이라며 그리스도의 속죄 목적을 단순히 인간의 회개를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도덕 감화설의 주관적 유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sup>31)</sup>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은 “속죄교리가

27) E. Y. Mullins, 「조직신학원론」, 권혁봉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4), 396-7.

28) E. Y. Mullins, *Baptist Beliefs*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51), 32.

29) E. Y. Mullins, 「조직신학원론」, 406.

30) Ibid., 382, 407.

31) Mullins,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308.

중요한 이유는 신학이 객관적인 면에서 주관적인 면으로 이동하도록 전환점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32)</sup>

다음에 멀린스는 생명적 및 율법적 요소의 상관관계성을 새롭게 정의하여 보이스의 형벌 대속설을 수정하고자 시도했다. 생명적 원리란 도덕적이고 영적인 율법의 표현을 말한다. 그는 율법적 요소들을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수정해 나갔다. 첫째, 그리스도의 속죄적인 죽음이 어떻게 율법을 만족시켰는가? 이에 멀린스는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과 정의를 만족시켰다고 답변했다. 둘째,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형벌이었는가? 멀린스는 형벌이 개인의 죄책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형벌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지은 죄의 형벌의 결과를 진 것이라고 말했다. 즉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작용하는 죄 사망의 원리의 세력으로부터 죄인을 구하고자 자신을 기꺼이 희생했다는 것이다.<sup>33)</sup>

셋째, 그리스도는 그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감수했는가? 이에 멀린스는 하나님의 진노란 증오가 아니라 죄에 반하는 하나님의 저항이자 반응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말은, 자기 안에 죄 사망의 원리가 작용하도록 자원하여 허용하신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어떤 의미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목제물인가? 멀린스는 화목제물의 의미가 하나님의 호의를 유발하는 수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입해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호의를 유발하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다. 멀린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았다. 다시 말해 그리

---

32) Millard J.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중」, 현재규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377.

33) E. Y. Mullins, 「조직신학원론」, 397-9.

스도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충만함이 인류에게 속하게 되었다는 ‘원리적 의미’에서 그러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끝낸 것이라는 의미에서 한층 더 화목제물”이라고 멀린스는 강조했다.<sup>34)</sup>

다섯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대리적인가 혹은 대리적이 아닌가? 여기서 멀린스는 성경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리적인 죽음으로 보여준다고 단호히 말했다. 그는 대리 개념이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영적 법칙과 생명으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갖는 대리의 원리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멀린스는 보이스가 말한 “우리의 대표자 그리스도” 개념을 비판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믿은 후에야 우리의 대표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대리의 관계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의 인간성 안에 왕 노릇하고 있는 죄 사망의 원리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법을 무효화 할 수 있는 희생자의 능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바르게 지적하였다. 따라서 멀린스는 그리스도께서 대리적인 속죄 행위를 통해 죄 사망의 법을 폐지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죄 사망의 원리”(sin-death principle) 대신에 “순종-생명의 원리”(obedience-life principle)로 대치시킨 속죄 사역을 특출하게 행하셨다고 결론을 내렸다.<sup>35)</sup>

### 3. W T. Conner의 승리설

윌터 드라우곤 3세(Walter D. Draughon III)에 의하면, 카너는 속죄론에서 멀린스보다 더 균형을 이루고 있다. 무엇보다 그는 보이스와 멀린스의 칼빈주의 형벌 대속설을 넘어 마귀에 대한 승리를 주제로 삼았다.<sup>36)</sup>

34) Ibid., 399-400.

35) Ibid., 400-2.

이 같은 카너의 속죄론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아울렌이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죄와 사망과 마귀에 대한 본질적 승리로 해석했다. 카너는 시드니 케이브(Sydney Cave)를 통해 속죄론의 고전적 유형을 접했다.<sup>37)</sup> 이 유형은 하나님의 전투와 승리로서의 속죄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악의 권세들과 싸워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켰다는 이론이다.<sup>38)</sup> 카너는 이 승리설을 기초로 형벌 대속설을 비판하고 있다.

한편, 카너는 형벌 대속설에 나타난 주요 개념을 파악했다. 그것은 “율법,” “형벌과 정의,” “죄 심판,” “대리,” “빛,” “대표자,” 그리고 “만족”에 대한 요구이었다.<sup>39)</sup> 카너는 형벌 대속설이 가진 몇 가지 개념을 비판했다. 카너에 의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율법과 형벌이 아닌 은혜와 구속으로 정복하기로 정하셨고, 십자가에서 죄의 능력을 극복하신 분이다.<sup>40)</sup> 그리고 형벌 대속설은 죄를 율법에 대한 위배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켰다.<sup>41)</sup> 또한 카너는 형벌 대속설의 죄 이해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즉 하나님의 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으로 율법을 통해 정의한 죄 개념은 개인이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께 짓는 죄 개념과 다르다는 지적이다(히 10:26-31).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풀고 저주에서 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은 보복적인 정의 이상이라

---

36) Draughon III,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Diminishing Influence of Calvinism on the Doctrine of Atonement in Representativ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James Petigru Boyce, Edgar Young Mullins, Walter Thomas Conner, and Dale Moody,” 9.

37) Draughon III, “속죄,” 『침례교 신학의 흐름: 1845년부터 최근까지』, 154.

38) Aul n, *Christus Victor*, 4.

39)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137-8, 142.

40) Conner, “Three Theories of the Atonement,” 287.

41)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147.

는 것이다.<sup>42)</sup>

나아가 카너는 형벌 대속설이 그리스도께서 죄인으로 형벌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그리스도는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카너는 형벌 대속설이 구원을 율법, 형벌, 그리고 처벌 등의 지나친 법률적인 용어로 설명한다고 비판했다. 형벌을 당하고 빚을 지불하며 정의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에 머물러 있는 속죄론만으로는 구원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미흡하다는 비판이다.<sup>43)</sup> 한마디로 카너가 본 보이스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한 속죄로 그 의미를 축소했다는 비판이다. 카너는 이 같은 보이스의 속죄론이 추상적이며 구원을 부가적인 것으로 여긴다고 평가했다.<sup>44)</sup>

카너는 형벌 대속설을 극복하기 위해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죽음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카너에 의하면, 십자가의 구속적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가능성의 성취였다. 이 성취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제공되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도록 필요한 것을 행하신 것을 의미한다(마 20:28; 막 10:45; 딤후 2:6). 우리의 구속이 그리스도의 성취라는 것이다.<sup>45)</sup> 그래서 카너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그리스도의 속죄가 단순히 속죄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하는 철학적 관념화를 강하게 거부했다.<sup>46)</sup>

다른 한편, 카너는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를 통해 십자가 승리설을 설명했다.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

42) Ibid., 143-5.

43) Ibid., 145-6, 161.

44)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76-7.

45) Ibid., 77-8.

46) Ibid., 80.

한다는 뜻이다.<sup>47)</sup> 카너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 사역을 표현한 독특한 상징으로 “십자가”를 선호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성취하신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동적 개념”이다.<sup>48)</sup> 십자가의 구속 행위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극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십자가는 죄와 마귀를 극복하는 모든 미래의 승리를 위한 토대가 되었다(요 16:32-33; 요일 5:4). 카너는 이에 덧붙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의한 승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의 실현과 연장선임을 강조했다.<sup>49)</sup> 이것이 카너의 “승리자 그리스도” 속죄론의 기초이다.

또 다른 한편, 카너는 부활에서 나타난 승리를 통해 속죄의 본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죽음에서 승리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는 죄를 정복함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승리하셨다(행 2:24). 여기서 카너는 멀린스의 “죄-사망”의 원리를 적용하였다.<sup>50)</sup> 카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킴으로써, 그리스도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닌 승리자로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부활에서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형벌 대속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기도 했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죽음으로써 죽음과 음부(*hades*)도 정복되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기독교의 분기점이다.<sup>51)</sup> 아울러 카너는 십자가와 부활이 악에 대한 승리의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 승리는 “우주적 규모로 완성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할 때까지 연장되는 승리”라고 명확히 밝혔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오순절에 보내주신

47) Gstohl, *Southern Baptist Theologians and Original Sin*, 85.

48)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77.

49) Walter T. Conner, “Theories of Atonement,” *Review & Expositor* vol. 44, no. 1 (July 1946): 308-9.

50) Mullins, 「조직신학원론」, 393-5;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119.

51)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120.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구세주와 주가 되게 하심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삶과 역사 가운데 새로운 영적 능력을 부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점에서 “승리자 그리스도”라는 것이다.<sup>52)</sup>

#### 4. Dale Moody의 희생제사적 승리설

무디의 승리설은 형벌 대속설과 도덕 감화설을 염두에 둔 속죄론이다.<sup>53)</sup> 그의 승리설은 그리스도로서의 예수에서 출발했다.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는 “구약의 의로운 인자로서의 종”(사 53:11)과 “죄에 대한 희생제사”(요일 2:1-2)를 의미한다.<sup>54)</sup> 무디는 “루터가 승리자 그리스도와 희생제물인 그리스도 양자를 채택했듯이, 자신도 이 양자를 기본 틀로 삼았다”고 말했다.<sup>55)</sup> 대신에 무디는 이 양자를 희생제물과 그리스도의 종 되심으로 규정했다. 그가 본 그리스도의 종 되심은 순종 모티브였다. 그리고 희생제사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었다. 그는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대속물”을 근거로 삼았다.<sup>56)</sup> 여기서 무디는 희생제사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4Rs, 즉 십자가에서의 하나님 계시(revelation)와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으로서 화해(reconciliation), 의(righteousness), 그리고 구속(redemption)으로 묘사했다(고전 1:18-4:21). 이는 무디가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인들을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사용한 주요 개념이었다(고전 5:6-8).<sup>57)</sup>

52) Ibid., 125.

53) Dale Moody, “Tabletalk on Theology Tomorrow,” *Review and Expositor* vol. 64, no. 3 (Summer 1967): 348.

54) Moody, “The Theology of the Johannine Letters,” 8.

55) Moody, *The Word of Truth*, 378.

56) Moody, “Tabletalk on Theology Tomorrow,” 347.

한편, 무디는 희생 제사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의 장벽을 제거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제물로 인식했다. 무디는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학과 하나님께 드려진 대속물을 보았던 것이다. 히브리서 1-7장에서와 같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예수님의 직무는 희생제물, 승리자, 그리고 대리인의 표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디는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은 왕이시고(히 2:8f), 승리자로서 예수님은 지도자이시며(히 2:10-13), 대리인으로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했다(히 2:14-18). 뿐만 아니라 무디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는 사건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신 “내어줌”(요 10:11, 15f, 17f; 15:13)과 “들리심”이 보인다고 말했다. 내어줌은 예수님의 자원적인 죽음에 대한 실체화이며, 들리심은 그의 죽음으로서 희생제사라는 것이다(요 3:13; 8:28; 12:32f). 이렇게 무디는 희생제물과 승리자 예수를 묘사하는 “내려오심”과 “내어줌” 그리고 “들리심”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동시에 보았다.<sup>58)</sup>

다른 한편, 무디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 개념을 통해 승리자 예수(the victory of Jesus)를 제시했다. 그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신 “버림의 외침”(막 15:37; 마 27:46)을 희생의 산제물로서의 죽음이라고 말했다(마 12:17-21; 사 42:1-4).<sup>59)</sup> 여기서 무디는 고난당하는 종 그리스도상이 나타나 있는 이사야서 53장과 베드로전서 2장 18-25절 말씀을 통해 대리자, 희생제물, 그리고 모범적이며 대리적인 고난의 그리스도상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벧전 3:18).<sup>60)</sup> 그러기에 무디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범이나 감화로만

57) Moody, *The Word of Truth*, 374-5.

58) *Ibid.*, 375-6.

59) *Ibid.*, 372.

60) *Ibid.*, 374.



보았던 견해를 비판하고, 루터가 고난 받는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승리자(victor)와 희생제물(victim)로 삼았던 것과 칼빈의 대리자(vicar) 개념을 종합하여 자신의 3Vs, 즉 승리자(victor), 희생제물(victim), 그리고 대리자(vicar) 개념으로 승리자 예수를 제시했다.<sup>61)</sup>

이와 같이 무디가 제시한 승리자 예수는 카너와 같이 교부시대에 우세했던 마귀에 대한 승리자로서의 예수였다. 승리자 예수는 사도행전의 특징이다(행 2:23; 3:15; 4:10; 5:30; 7:52). “승리자 예수”라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표현한 용어이다(행 2:36; 롬 1:4). 즉 그 희생의 산제물이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바로 승리자 예수께서 단순히 죄와 죽음을 극복한 게 아니라, 마귀와 악한 영들을 지배한 것을 의미한다(벧전 3:22).<sup>62)</sup> 이렇게 무디는 형벌 대속설과 도덕 감화설을 고난의 종으로서 희생의 산제물인 승리자 예수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 IV. 속죄의 효력

보이스, 멀린스, 카너, 그리고 무디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발생한 속죄의 효력은 동일하게 화해였다. 이 화해는 과연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가 무엇이며, 또 그것이 누구를 위한 속죄인지에 관한 질문의 산물이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속죄의 효력과 범위 양면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신학자들은 어떻게 속죄의 효력과 범위를 설정하고 있을까?

61) Ibid., 378.

62) Ibid., 373-4.

## 1. 속죄의 효력

보이스는 “그가 대리하여 죽은 자들의 죄책을 지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벌을 부과하셨다. 그 결과 죄 선고가 제거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평화가 초래되었다”고 묘사했다. 그는 여러 곳에서 실제적인(actual) 속죄와 실질적인(real) 화해에 대해서 언급하였다.<sup>63)</sup>

이와 달리 멀린스는 십자가란 화해를 위한 수단이지, 그것이 실질적인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sup>64)</sup>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룩하신 화해는 죄인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근거로서 죄인의 삶에 영구한 확신의 능력을 부여한다”고 언급했다.<sup>65)</sup> 다른 곳에서 멀린스는 외부에서(without)와 같이 내부에서(within)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속죄가 객관적으로 나타났지만, 진정한 화해는 주관적 체험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sup>66)</sup>

카너는 “어떤 이가 하나님 편에서 화해된 인간을 말할 뿐, 인간 편에서 하나님이 화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보이스의 견해를 비판했다. 오히려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는 것”이라고 카너는 말했다.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인간의 변화를 기다리시고, 인간은 화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한다(롬 5:11). 그래서 카너는 화해란 하나님의 행위로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죄인의 변화된 태도를 조건으로 삼는다고 명료하게 말할 수 있었다.<sup>67)</sup>

무디는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에 의한 화해를 제시했다. 그리스도의 희

63) Boyce, *Abstract Systematic Theology*, 328, 331.

64) Draughon III, “속죄,” 「침례교 신학의 흐름: 1845년부터 최근까지」, 141.

65) Mullins, 「조직신학원론」, 410.

66) Mullins,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321.

67) Conner, *The Faith of the New Testament*, 337.

생은 주로 화해를 야기하는 특성이 있다. 그는 화해를 두 관점과 세 국면으로 설명했다. 화해의 두 관점은 하나님과 화해의 주체이시고, 인류는 화해되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기본 틀이었다. 그리고 화해의 세 국면은 개인의 인격적인 화해와 사회적인 화해 그리고 우주적인 화해였으며,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화해로 부르시지만(고후 5:20),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었다(고후 5:21).<sup>68)</sup> 이와 같이 보이스, 멀린스, 카너, 그리고 무디의 표현을 보면, 동일한 화해를 말할 때 보이스는 “하나님과 우리,” 멀린스와 카너는 “그리스도와 인간과 우리,” 그리고 무디는 “우리와 인류” 라는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속죄의 효과는 화해와 속죄의 범위를 내포하고 있었다.

## 2. 속죄의 범위

여기서는 보편속죄(a universal atonement)와 제한속죄(a limited atonement)를 다루지만 일반적으로 보이스, 멀린스, 카너, 그리고 무디의 신학적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한 속죄의 범위와 내용만 간략하게 소개하고 새로운 논의를 살펴보겠다.<sup>69)</sup> 보이스는 속죄가 일반적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제한하는 속죄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말했다.<sup>70)</sup> 오직 제한속죄만 인정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멀린스는 “보편과 제한”의 틀로 보편적이며 제한적인 속죄의 범위를 설명했다(요 3:16; 요일 2:2; 딤후전 2:4-6). 특히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0절의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는 구절은 “온 인류와

68) Moody, *The Word of Truth*, 330-1.

69) 침례교의 선택교리에 대해서는 근광현, “남침례교 조직신학자들의 선택교리,” 『복음과 실천』 57집 (2016 봄): 73-100을 참조.

70) Boyce, *Abstract Systematic Theology*, 336-7.

믿는 자들”을 지칭한다며, 이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이익”(benefit)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본문으로 삼았다.<sup>71)</sup> 이렇게 멀린스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편적인 죽음이지만,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카너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과 인간의 믿음의 반응에 의한 속죄 범위를 제시했다. 그는 십자가가 은혜의 하나님의 계시 측면과 이에 대한 종교적인 믿음의 틀을 구성한다고 생각했다.<sup>72)</sup> 무디는 칼빈주의의 선택교리에 문제가 있다 보니 윤리가 실종되었다며 그들의 제한속죄를 거부한 신학자였다.<sup>73)</sup> 그는 오직 화해의 메시지 주체인 “하나님과 우주와 화해 대상으로서 인간”에 초점을 맞추었다.<sup>74)</sup> 자칫 만인구원설로 오해받을 수도 있는 표현처럼 보인다.

다른 한편, 현대의 여러 신학자 사이에서 속죄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제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소위 종합적인 시도이다. 데이빗 스케어(David Scaer)는 보편속죄와 제한속죄 사이에 있는 긴장을 제3의 접근법인 종합적 입장에서 풀어나갈 것을 제안한 사람이다. 제1의 접근법은 속죄를 선택의 빛에서 이해하며,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실제적 구원이 적용된다고 가르치는 칼빈주의자들의 견해이다. 제2의 접근법은 선택을 속죄의 빛에서 이해한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개개인이 믿기 위해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견해이다. 그리고 제3의 접근법은 성경이 속죄와 선택에 관해 진술하고자 분석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속죄는 보편적이지

---

71) Mullins, 「조직신학원론」, 413.

72)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170-2.

73) Paul D. Simmons, “The Ethics of Dale Mood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vol. 14, no. 4 (Winter 1987): 127.

74) Moody, *The Word of Truth*, 329.

만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에 의해 어떤 개개인에게 제한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루터주의 견해이다(눅 24:47; 요 1:29; 3:16; 6:51; 요 일 1:7; 2:2; 마 11:28; 롬 11:32; 벵후 3:9).<sup>75)</sup>

일찍이 개혁주의 신학자 프랜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도 속죄의 범위에 관한 논쟁에서 양측이 다 인정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도록 권고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무한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기를 선하게 여기신다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을 양측 모두가 인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고대 교부들은 이 의미를 살리기 위해 “충분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만, 실제적인 효력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택자들만 구원한다”는 한 가지 구별을 만들어냈고, 이후에 많은 신학자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sup>76)</sup>

침례교 조직신학자 밀라드 에릭슨(Millard J. Erickson)도 예정론으로부터 제한속죄를 추론해내려는 시도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균형 잡힌 견해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그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필요한 두 가지 분리된 요소는 객관적 요소(그리스도가 예비하신 구원)와 주관적 요소(그 구원에 대한 우리의 응답)라고 말했다.<sup>77)</sup> 지금까지 속죄의 범위 설명에 나타난 용어들을 모아보면, “보편과 제한,” “충분과 유효 혹은 효과,” “객관과 주관,” 그리고 “하나님 편과 인간 편”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침례교 조직신학자 스탠리 그렌즈(Stanley J. Grenz)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의 희생제사의 속죄는

75) David Scaer,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Atonement in Lutheran theology,”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10, no. 4 (Fall 1967): 187.

76) Francis Turretin, 「개혁주의 속죄론」, 이태복 옮김 (서울: 개혁된신앙사, 2002), 164-5.

77)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중」, 436-9.

보편적인 속죄를 낳지만(충분성), 인간 편에서 보면 예수의 속죄는 인간의 응답(유효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고후 5:19-20).<sup>78)</sup>

## V. 속죄의 실천적 의의

앞서 살펴본 신학자 가운데 카너 외에는 속죄교리와 실천적 요소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은 없었다. 그마저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심도 있는 표현에는 미흡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속죄와 치유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1. 속죄에 의한 도덕적 가치부여

카너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에 의한 속죄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 신분의 기초를 구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sup>79)</sup> 이 같은 구성은 인간이 믿음으로 얻게 되는 칭의를 통해 확립된 새로운 신분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살도록 세워지게끔 되어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카너는 이 같은 기초 위에 십자가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했다.<sup>80)</sup> 십자가는 죄악으로 구성된 이 세상의 질서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와 부활에서 우리의 죄악이 정복되기 때문이다.<sup>81)</sup>

카너는 십자가의 기초 위에 십자가를 나누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

78) Stanley J. Grenz,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옮김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513.

79) W. T. Conner, *Christian Doctrine* (Nashville: Broadman Press, 1937), 177-8.

80)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92-3, 97.

81) Conner, "Theories of Atonement," 310.

삶을 이야기한다. 카너에 의하면, 십자가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아부정과 완전한 포기의 원칙이다(마 16:24).<sup>82)</sup>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완전한 자기포기였다. 그리고 자기부정은 탈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십자가의 원리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주는 삶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기부인의 삶은 그리스도와 동료를 섬기는 일에서 자아를 버린다는 의미였다. 그래서 카너는 십자가의 원리에서 체득한 자기부인을 기반으로 복음전도와 선교적인 역동성, 중보기도, 그리고 선으로 악을 극복하며 사는 삶 가운데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sup>83)</sup>

## 2. 치유의 기능으로서 속죄

에릭슨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무엇 때문에 속죄를 이루셨는지에 대한 대답은 그의 죽음의 목적과 관련된 죄의 영향력, 즉 죄와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제거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속죄가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적용되었을 때에는 죄 용서와 구원과 화해가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연 속죄의 성취가 의도하는 결과가 이것뿐인지에 관한 질문들이 등장했다. 즉 “육체의 영적 치료”에 관한 관심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sup>84)</sup> 찰스 브라운(Charles E. Brown)은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승리자 그리스도”의 속죄설을 통해 치유에 대한 심리적이고 역학적인 이해 가능성을 제안했다.<sup>85)</sup>

그러나 20세기에 들어 속죄와 치유에 관한 극단적 견해와 온건한 견해가 혼재하고 있다. 극단적 견해는 오순절운동(pentecostal movement)과

82) Conner,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124.

83) Conner, *The Gospel of Redemption*, 129-33.

84)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중」, 440.

85) Charles E. Brown, “The Atonement: Healing in Postmodern Society,” *Interpretation* vol. 53, no. 1 (January 1999): 37-42.

이에 대한 반대파의 견해이다. 오순절운동의 특징은 “속죄 안에 있는 치유”(Healing in the Atonement)였다. 질병과 고통은 타락의 결과로 여겨졌고, 그것은 영혼과 동일하게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러 학자 가운데 심슨(A. B. Simpson)은 「치유의 복음」(*The Gospel of Healing*)에서 “죄와 질병”을 핵심적인 공동의 의존관계로 묶어놓았다.<sup>86)</sup> 켈리 보커베이(W. Kelly Bokovay)에 의하면, 심슨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극도의 죄 용서와 같은 방식으로 속죄의 치유가 보장된다고 말하며, 질병을 영적인 문제로 보고 의학적 진단을 무시하는 자들이었다. 반면에 극단적인 치유증지주의자들은 “죄-질병”의 의존관계를 철저히 반대했다. 워필드(B. B. Warfield)는 속죄가 죄 문제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그런가하면, 토레이(R. A. Torrey)와 존 스토틀(John Stott) 같이 온건한 입장을 취하는 신학자는 속죄로 인해 육체적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지만, 재림 때까지는 모든 신자가 다 치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sup>87)</sup>

다른 한편, 에릭슨은 속죄와 치유의 관계에 균형을 잡기 위해 이사야 53장 4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그는 먼저 심슨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육체의 치유도 가져왔다는 견해를 성경적으로 평가했다. 첫째, 일반적으로 질병의 기원은 타락으로 보인다(신 28:22; 롬 8:20-23). 하지만 어떤 경우에 예수님은 질병이 개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있다(요 9:2-3). 둘째,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죄 용서와 치료를 연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으로 죄와 질병 사이의 내적 연관성을 알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셋째, 예수님은

86) Randall Holm, “Healing in Search of Atonement,”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vol. 23, no. 1 (2014): 50, 57.

87) W. Kelly Bokovay,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ing to the Atonement,” *Didaskadia* vol. 3, no. 1 (October 1991): 24-5.



많은 경우에 믿음을 근거로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다. 만일 그 질병이 개인적인 죄의 결과라면 육체적 치료를 받기 위해 죄 용서를 구하리라고 예상할 수는 있다(마 8:5-13; 9:20-22; 눅 17:11-19; 막 7:24-39; 9:14-26; 10:46-52). 그러나 죄 용서에 요구된 믿음은 항상 개인의 믿음이었다. 하지만 에릭슨은, 중요한 것은 질병과 죄를 동일한 방법으로 물리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슨의 전제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sup>88)</sup>

에릭슨은 좀 더 자신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사야 53장 4절을 주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의 주석에 의하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에서 명사 ‘*chali*’(질고)는 육체적 질병의 뜻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사 1:5; 호 5:13). 동사 ‘*nasa*’(지다)의 기본 의미는 ‘들어 올리다’의 뜻으로 200개의 문장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가져가다’의 의미로 60여 문장이 있고, 또 ‘깊어지다, 운반하다’의 뜻으로 사용된 경우가 100여 가지이지만, 30개 정도만이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언급하며, 그중 6개의 문장이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다’는 의미로 쓰였다(사 53:12). 그러므로 ‘*nasa*’는 ‘대신 짊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이사야 53장 4절에서는 ‘이미 가져갔다’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사야서는 고난 받는 종이 어떻게 그것을 가져갔는가보다는 무엇을 가져갔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보여준다. 한편, 또 다른 명사는 ‘*mak'ov*’(슬픔)인데 구약에 15회 나온다. 그중 세 번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하는 것 같다. 이 단어가 뜻하는 기본적인 개념은 육체적 부담을 포함해서 정신적 고통과 슬픔 또는 생활의 고달픔에서 비롯된 고민 등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유사한 뜻은 아마도 육체적인 나약함의 결과로 생기는 정신적 질병 또는 고민(슬픔)일 것이다.<sup>89)</sup>

88) Erickson, 「복음주의 조직신학: 중」, 440-3.

89) Ibid., 443-4.

에릭슨은 이 같은 주석적 분석을 토대로 이사야 53장 4절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즉 이사야 선지자는 실질적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과 고통을 언급하고 있지, 그것이 필연적으로 대신 짊어짐을 언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사야 53장 4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죄를 대신 짊어지다’라는 뜻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고, 다만 ‘짊어지다, 나르다’의 의미로 인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에릭슨은 마태와 이사야 둘 다 죄를 언급했다기보다는 실제로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을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병을 대신 짊어진다’는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삶의 고통을 동정적으로 짊어지는 것에 관해 말했다고 함이 더 유사한 해석일 것이라고 권고했다. 에릭슨이 표현한 결론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병을 치료하셨고 오늘날에도 치료하고 계신다. 그러나 그 치료는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병도 대신 짊어지고 가심을 뜻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속죄가 타락으로 인한 모든 영향을 제거해 버림이 틀림없다. 그러나 그중 어떠한 효력들은 세상 끝에 가서야 비로소 실현될 것들도 있다(롬 8:19-25). 그러기에 우리는 죄 사함의 경우처럼, 모든 경우에 치료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고후 12:1-10; 계 21:4). 또 하나는 치료해 주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은, 우리가 이 육신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균형 있는 속죄와 치유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히 9:27).<sup>90)</sup>

## VI.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남침례교의 속죄교리는 보이스에 의해

---

90) Ibid., 444-6.

서 칼빈주의자들의 형벌 대속설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멀린스는 형벌 대속설이 가진 단점들을 보완하여 수정된 형벌 대속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카너의 경우에는 형벌 대속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것을 넘어 승리설로 선회했다. 그런가하면 무디는 형벌 대속설과 도덕 감화설을 소극적으로 비판하면서 승리설을 주장했다. 이처럼 세 신학자가 형벌 대속설을 수정하거나 비판하면서 그것을 넘어선 이유는, 형벌 대속설이 하나님 편의 정의, 율법, 형벌, 그리고 만족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멀린스와 카너와 무디는 보이스의 형벌 대속설이 추상적이고 밋밋하며 생동감이 결여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속죄를 “하나님 편”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편과 인간 편”에서 동시에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의로운 사랑이 작동하여 역동적이고 생동적인 속죄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카너의 승리설과 무디의 승리설이 가진 차이점은 강조점의 차이였다. 카너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승리를 보았다면, 무디는 희생 제사를 통해 예수님의 승리를 보았다는 점이다. 무디는 예수님의 인성의 측면으로 접근했다.

좀 더 세부적인 문제로 들어가 보면, 네 명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효력이 화해를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일치점을 보였지만, 그 대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 차이를 보였다. 보이스는 실질적인 화해를 주장하며 제한속죄를 주장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오직 선택된 자들을 위한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멀린스와 카너는 “객관과 주관”의 관점에서 보편적이며 제한적인 속죄를 주장했다. 다만 무디는 이 문제에 대해서 멀린스와 카너처럼 심도 있게 접근하지 않았다. 성경은 구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엡 2:5-8). 최근에는 균형 잡힌 속죄설을 위한 기본 틀로서 “충분과 유효”의 양면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어가고

있는 것 같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충분, 객관, 하나님 편, 보편), 인간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유효, 주관, 인간 편, 제한).

나아가 속죄론의 실천적 가치에 있어서 네 명의 신학자는 교리적인 측면에서 속죄를 다루다보니 실천에 관한 원리 차원에 머물고 말았다. 우리가 균형 잡힌 인간의 삶은 전인격적인 건강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때, 건전한 속죄론은 보다 더 실제적인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컨대 속죄의 실천적 의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죄와 치유”라는 문제 역시도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 보커베이는 “만일에 십자가가 기독교 신학의 중심에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은 치유신학을 세우는데 필수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네 명의 신학자는 속죄론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할 때, 이사야 53장 3-12절과 마태복음 8장 17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서로 연계하여 제시했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이와 같이 멀린스, 카너, 그리고 무디는 보이스의 형벌 대속설이 생동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멀린스와 무디는 생동적인 속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네 명의 신학자는 속죄와 치유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들과 달리 카너는 마귀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가 성취된 십자가를 “죄와 마귀를 극복하는 미래의 승리를 위한 토대”로 삼았다. 그러면서 카너는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성취한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생동적 개념”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적인 죽음으로 성취된 모든 것”을 생동적인 속죄로 보았던 카너의 견해를 통해, 연구자는 속죄가 “마귀-죄-사망-형벌-하나님의 의로운 사랑-희생제사-대속물-승리-믿음-영생-화해-모범-자기부인-

치유-복음전도” 등을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요 3:16; 롬 3:21-28; 4:25; 고후 5:19-21; 요일 2:1-2; 사 53:3-12; 마 8:17; 벤전 2:19-25; 롬 8:13-14; 갈 5:24; 고전 1:18-30).

# 참고자료

## 1. 단행본

- Aul n, Gustaf. *Christus Victor*. trans. A. G. Hebert.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6.
- Boyce, J. P. *Abstract Systematic Theology*. Escondido: Dulk Christian Foundation, 1887.
- Boyd, Gregory A, et al. 「속죄의 본질 논쟁」. 김광남 옮김.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 Conner, W. T. *Christian Doctrine*. Nashville: Broadman Press, 1937.
- \_\_\_\_\_. *The Cross in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54.
- \_\_\_\_\_. *The Faith of the New Testament*. Nashville: Broadman Press, 1940.
- \_\_\_\_\_. *The Gospel of Redemption*. Nashville: Broadman Press, 1945.
- Draughon III, Walter D. “속죄.” 「침례교 신학의 흐름: 1845년부터 최근까지」. Paul Basden 편. 침례교신학연구소 옮김.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출판부, 1999.
- Erickson, Millard J. 「복음주의 조직신학: 중」. 현재규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1996.
- Grenz, Stanley J. 「조직신학: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신학」. 신옥수 옮김. 경기: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Gstohl, Mark A. *Southern Baptist Theologians and Original Sin*. Lewiston: The Edwin Mellen Press, 2004.
- Ladd, G. E. 「신약신학」. 신성중, 이한수 역.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4.
- Moody, Dale. *The Word of Truth: A Summary of Christian Doctrine Based on Biblical Revelation*.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81.

Mullins, E. Y. *Baptist Beliefs*.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51.

\_\_\_\_\_. 「조직신학원론」. 권혁봉 역. 서울: 침례회출판사, 1984.

\_\_\_\_\_. *The Christian Religion in Its Doctrinal Expression*. Philadelphia: The Judson Press, 1917.

Turretin, Francis. 「개혁주의 속죄론」. 이태복 옮김. 서울: 개혁된신앙사, 2002.

## 2. 정기간행물

Bokovay, W. Kelly. "The Relationship of Physical Healing to the Atonement." *Didaskadia* vol. 3, no. 1 (October 1991): 24-39.

Brown, Charles E. "The Atonement: Healing in Postmodern Society." *Interpretation* vol. 53, no. 1 (January 1999): 34-42.

Conner, W. T. "Theories of Atonement." *Review & Expositor* vol. 44, no. 1 (July 1946): 301-11.

\_\_\_\_\_. "Three Theories of the Atonement." *Review & Expositor* vol. 43, no. 3 (July 1946): 275-90.

Holm, Randall "Healing in Search of Atonement." *Journal of Pentecostal Theology* vol. 23, no. 1 (2014): 50-67.

Moody, Dale. "Tabletalk on Theology Tomorrow." *Review and Expositor* vol. 64, no. 3 (Summer 1967): 341-56.

\_\_\_\_\_. "The Theology of the Johannine Letters." *Southwestern Journal of Theology* vol. 13, no. 1 (Fall 1970): 7-22.

Scaer, David.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Atonement in Lutheran theology." *Bulletin of the Evangelical Theological Society* vol. 10, no. 4 (Fall 1967): 179-87.

Simmons, Paul D. "The Ethics of Dale Mood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vol. 14, no. 4 (Winter 1987): 125-38.

### 3. 논문

Draughon III, Walter D. "A Critical Evaluation of the Diminishing Influence of Calvinism on the Doctrine of Atonement in Representativ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James Petigru Boyce, Edgar Young Mullins, Walter Thomas Conner, and Dale Moody." Ph.D. diss.,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1987.